

# 심사평

권진혁\*

## 창조연대논쟁 I : 성경적 고찰 - 양승훈

본 논문은 창조론의 연대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창세기 1장의 날(Yom)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크게 나누어서 욥을 24시간으로 보는 견해와 어떤 불특정한 기간으로 해석하는 견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대립되어 왔는데, 본 논문의 요지는 성경의 용례를 자세히 밝혀 가면서 성경 자체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리는 데 있다. 욥을 24시간으로 보든지 시대라고 보든지 둘다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창조론 연대기 연구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성경에 나타난 욥의 용례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과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써 창조론 연대체계의 접근에 훌륭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창조연대논쟁 II : 역사적 고찰 - 양승훈

창조론의 연대를 밝히기 위한 시도로써 창조연대 논쟁 I의 계속이며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먼저 1-3세기에는 24시간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4세기에 들어와서 어거스틴도 창조일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였다. 또 종교개혁기에 루터는 24시간으로 본 반면

\* 서울대 물리학 전공,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현 영남대 물리학과 교수,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실행위원, 한국창조과학회 대의원.

에 칼빈은 창조의 길보다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미에 관심을 두었다.

그후 라잇폴과 어서농은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연대기에 근거하여 창조의 시기가 주전 4004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구약학 연구자들이 구약의 연대기에는 생략된 계보가 많이 있다고 발표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그 주장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본 논문은 지질학적인 발견과 지질 이론의 성립과정을 상세히 논하고 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 근본주의적 창조론자들의 24시간론과 다수의 복음주의 진영의 날-시대이론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역사적으로 초대 교회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창조의 날을 24시간으로 본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들은 모두 근대 이후 진화론이나 천문학을 알기 이전의 사람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초대 교회나 종교개혁 당시에는 물리적 의미의 날에 대한 것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으며 서로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심각한 갈등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본 논문의 가치는 초대 교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창세기에 대한 견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고, 또 이 문제에 대하여 이해와 사랑으로 일치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에 와서 창조주간의 날이 24시간인가 긴 시대인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폭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 이단적 요소가 있다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배된다거나, 교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지나치면, 논쟁이나 분리를 위한 행위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읽기에 즐거운 논문이다.

## 권정섭에 입각한 창조 연대기 - 윤석찬

본 논문은 오래된 우주와 오래된 지구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지 못하면서도 또한 10,000년 내외의 젊은 연대에 대한 일부 창조론자들의 연대 주장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모순적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시도로 쓰여졌다.

논문의 내용은 광범위한 자료 조사와 토론을 통해 쓰여졌음을 느낄 수 있으며 매우 충실한 논문으로 사료되며, 본 통합연구의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 주된 내용은 우주

와 지구는 기존 과학자 사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오래 되었으나, 지구상에 생물과 인간이 창조된 것은 10,000년 내외의 최근이라는 것이다. 노아의 홍수를 지구적 규모의 대홍수로 해석하고 있으며, 고생대 이후 중생대, 신생대 대부분의 지층과 화석이 노아의 대격변으로 인해 생겼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흐름은 창조과학회의 주장과 크게 상이하지 않다. 다만, 오래된 우주와 오래된 지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무리하게 끌어들이는 감이 없지 않다. 소위 '관점 가설'이라는 것인데, 속도가 빛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고, 정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상대론적 개념을 도입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폭발 이후(저자는 대폭발을 creation-ex-nihilo의 창조의 순간으로 해석하고 있음) 7일 창조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인간이 보기에는 수백억 년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도입하여 모순점을 넘어보려 하고 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지창조는 글자 그대로 7일만에 끝났는데, 인간이 보기에는 수백억 년이 지난 것이 된다. 따라서 창세기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관점가설은 성경에도 하나님에게는 “천 년이 하루같고 하루가 천 년같다”는 말이 있는 것과 유사하지만, 일종의 이현령 비현령 같아서 학문적 체계성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필자가 자신이 도입하고 있는 상대성이론이나, 인플레이션이론의 한계와 같은 것들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점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과 성경을 조화시켜보려는 훌륭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통합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기독교 관점에서 본 가이아 이론 - 조정일

본 논문은 러브록이 1987년 제창한 '살아있는 지구', 즉 가이아 이론을 기독교와 과학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러브록은 생명체만이 비평형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지구라는 혹성이 비평형 상태에 있으므로 하나의 지능을 갖춘 커다란 생명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생명과학을 전공한 저자는 매우 정통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가이아 이론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였으며, 시기 적절한 훌륭한 논문이라고 하겠다.

다만, 저자는 가이아 이론이 과학인가 비과학인가의 부분에 들어가서, 현재의 과학철

학적 경향이 양자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의 과학성 여부는 속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과학철학자들의 주장과는 별도로, 전통적 과학자 사회에서 사용해 온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러브록의 주장이 형이상학적이고 매우 주관적임을 간파했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러브록의 주장은 과학적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고 과학적 방법으로 대중들을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 방법으로 그 이론의 무리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이다.

### **진화하는 생명기원설 - 김남득**

본 논문은 고대 그리스와 바빌로니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생명기원설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물이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오히려 진화론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 이하여 진화론의 한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생명기원설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보탬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각종 진화론을 소개하면서 그 모순점과 문제점을 좀더 분명하게 부각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본 논문의 장점인 비교론적 논의를 통해서 창조론의 우위성을 좀더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나타내 주었으면 하는 점이다. 본 고에서 창조론을 단지 신자에게는 당연하고도 불변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은 논문으로서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겠다.

### **목적원인에 나타난 생명의 증거들 - 심영기**

본 논문은 자연계와 생물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독특하고 정교한 현상들에 집중하여, 결코 이러한 것들이 우연히 발생하거나 혹은 진화의 단계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해자의 개입과 창조의 특별한 목적이 개재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창조의 증거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

특별한 목적과 특이한 설계를 나타내는 자료들로써, 저자는 눈, 해삼, 정원개미, 딱정

벌레 등에 나타나는 설계와 생명체의 아름다움, 의태, 상사기관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창조의 증거를 체계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창조론의 과학적 기초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본 논문의 여러 곳에서(예: 결론에서 “곳곳에 퍼져있는 진화론은 현재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 현 시대의 도덕적 타락을 마치 모두 진화론의 책임인듯이 기술하고 있는 것은 본 논문의 취지와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실 진화론이 세속주의와 유물론적 세계관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지만, 모든 도덕적 타락을 진화론에 돌리는 것은 오히려 반격을 받을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확립되기 이전에도 인류의 도덕적 타락상은 심각했기 때문이다. 노아의 홍수 당시조차도 세계적인 타락이 만연되어 있었지 않은가?

따라서 진화론에 의한 유물주의와 세속주의의 확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언급하였다 라면, 전체적으로 더욱 아름다운 논문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